인도 나란다 대학 복원 준비 '순항'

싱가포르 · 日 지원 구체화… 亞 학술연구 중심지로 부활 기대

서양사 중심으로 서술된 교과서나 상식백과 서적에서는, 이탈리아의 볼로냐(Bologna) 대학을 '세계 최초의 대학'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고, 이것을 '당연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세계 최초의 대학이 볼로냐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비(非)상식', 아니 '몰(沒)상식'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도의 나란다(Nalanda) 대학교는 서기 전 5세기 굽타 왕조 시대에 설립되어 1,199년 이슬람군의 공격을 받아 폐허가 될 때까지 1,600여 년 동안 인도뿐만 아니라 한국 · 중국 · 일본과 태국 ·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유학생이 몰려들어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던 곳이다.최고의 교수진과 10,000명에 가까운 학생이 넘쳐나던 명실상부한 종합대학교였다.

이에 반해 법학 중심의 단과대학에서 출발한 볼로냐대학은 서기 1,088년에 개교하였으니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 '몰상식'이라고 하는 내 말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나란다 대학이 폐허가 된 것도, 세속의 대중을 떠나 사변적(思辨的)으로만 흐르고 말았던 인도 불교가 감수해야 했던 업보(業報)일지 모른다.

폐허가 되어 '세월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나란다대학 터에 서서, 당시 세계적인 석학들과 학승들이 불교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고 토론하던 장면을 떠올리면 '제행무상'의 가르침이 절실해진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는 제 아무리 '제행무상'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심 깊은 불자라면 폐허를 바라보는 마음이 쓰리고 저려오는 것이 당연하다. 부처님 제자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과 무능력에 실망하고 말 것이다. 국적을 떠나, 나란다대학을 복원하여 '세계 최고(最古)의 대학'을 '세계 최고(最高)의 대학'으로 육성하고 싶다는 원(願)도 가져볼 것이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나란다대학이 위치한 "인도의 비하르 주 정부가 싱가포르 ·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나란다대학을 복원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반가운 외신이 전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구체적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11월 20일 인도의 IPS(Inter Press Service) 통신사의 카링가 세네비라트네(Kalinga Seneviratne) 기자가 뉴델리 발로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싱가포르 · 일본 및 불교에 관심이 있는 다른 나라들의 지원을 받아 나란다대학을 복원하여 아시아 학문 연구의 중심이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세계 최초대학 사실상 '볼로냐' 아닌 '나란다'

중국, 인도와의 관계 개선 기회로 여겨

"관광객 유치用 · 세속화 우려" 비판에도 불구

지역 불자들 자긍심 높이는 '반가운 불사'

미화 1억5천만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야심 찬 프로젝트는 이번 주 뉴델리에서 <불교적 문화 고리의 복원(Reviving Buddhist Cultural Links)>를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비하르 주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합작사업(Joint Venture)에는 스리랑카 · 태국과 중국 등 불교도의 비율이 높은 일부 국가의 참여도 예상된다.

11월 13일 심포지엄 개막식에서 싱가포르 외무장관 져지 여오(George Yeo)는 "이 프로젝트는 '종교'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정수(精髓)였던 불교적 가치와 철학'에 관한 것"이라고 밝히고, "이제 세계무대에서 아시아가 재부상하고 있으므로 아시아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위해 과거 역사에서 영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의 나란다대학이 그러했듯이, 이제 우리들이 나란다대학을 아시아 문예부흥의 상징으로 발전시켜 광범위한 지역에서 학자와 학생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도 나란다 대학 복원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대학 부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인도 비하르주에 있는 나란다 대학 유적지.
사진제공=한북 스님

인도 대통령 압둘 카람(Abdul Kalam)도 뉴델리에서 생방송으로 전해진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해가는 모델"이라며, "마음의 화합이라는 과제는 이제 고대 나란다대학의 탄생지인 비하르에서부터 동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이 사업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비하르 주 기획청의 부책임자인 싱(N.K Singh)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고대의 나란다대학 인근에 이미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토지를 선정하였으며, 12월에는 이곳에 대학을 건립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싱가포르 이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대학 건립과 운영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란다대학 복원 사업이 '인도의 불교 부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인도에서도 극빈 지역에 속하는 비하르 주 정부의 경기부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제적' 목표와 싱가포르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였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최근 인도와 우호관계 회복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국 측에서도 '나란다를 통한 인도 문화의 중국 전파'를 강조하며 "과거 인도에서 받기만 했던 중국이 이제는 갚아야 할 때"라고까지 하며 정치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나란다대학 복원 계획의 뒤에 감추어진 '세속화 우려' 등의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이 사업이 '반가운 불사(佛事)'임에 틀림없다.

이 불사가 단순하게 건물만 건축하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옛 나란다대학의 명성을 되찾아 '불교학을 중심으로 제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학문 중심'으로 우뚝 일어서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무슬림의 3분의 1, 기독교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나란다 지역 불교도에게도 자긍심을 갖게 해주고, 이 지역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몇 개 안되는 종립대학교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미래에 대한 전망과 희망도 보이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나란다대학 복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라"고 권고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일을 지켜보면서 우리 불교계 지도자들도 사심을 버리고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뿐이다.

이병두(자유기고가)

'연기경' 범어원전 추정 유물 바미얀 석불 파편서 발견

불상 내부 안치했던 태내경 가능성 높아

2001년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바미얀 석불 파편에서 중국 현장 법사가 한역한 경전의 범어 원본 일부가 발견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2일 "유네스코 협력기관과 국제기념물유적회의(ICOMOS)의 독일 조사단이 아프가니스탄 중부에 파괴된 바미얀 동 · 서대불 가운데, 동대불의 잔해에서 5~6세기 경의 문자로 쓰인 불경의 원전 일부를 발견했다"며 "이 경전은 7세기경 바미얀을 방문했던 중국의 고승 현장 법사가 한역해 한국에도 전해졌던 '연기경(緣起經)'의 범어(梵語) 원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일본 불교대의 마쓰다 가즈노부(松田和信) 교수의 말을 인용해 "발견된 이 경문은 대불 건립 당시 불상 내부에 안치됐던 '태내경(胎內經)'일 가능성이 커, 수수께끼에 휩싸였던 바미얀 대불의 건립 경위 등을 해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이어 "이 경전은 인도 북부로부터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지역에서 6~7세기 경에 사용된 '키르깃 바미얀 제1형 문자'로 기록됐다"며 마쓰다 교수의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 2001년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바미얀 석불의 모습. 중국 현장 법사가 한역한 '연기경'의 원전으로 추정되는 경전이 이 석불의 파편에서 발견됐다.

<연기경(緣起經)>은 만물은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파한 대표적인 경전. 이번에 발견된 경전은 자작나무 껍데기에 쓰인 것으로, 부처님 사리와 함께 천으로 싸인 상태로 발견됐다. 김철우 기자

인도 불교유물 밀수 · 도난 골머리

비하르주 지난해 3600점 해외유출

인도 비하르 주 당국이 불교유물 밀수와 도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AP 통신은 최근 "작년 한 해 동안 3,600개 이상의 불교유물이 인도 비하르 주에서 해외로 유출됐다"며 "비하르 경찰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5명의 특수대를 구성하여 밀수소탕작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중국 등 불교국가에서 불교유물의 수요가 많은데다가, 비하르 주의 치안상황이 열악해 밀수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달에만 18구의 청동불상이 파트나 박물관에서 도난당했고, 20년간 수백 개의 청동불상과 필사본 수천부가 도난당하는 등 이 지역 불교유물 도난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심지어 최근에는 1600년 된 청동불상이 우타르 프라데쉬 주에서 발견됐고, 국제밀수조직이 체포되기도 했다.

마하보디 사원의 주지 보디팔라 스님은 "인도는 날마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美 왓선빌리 사원 설립 100주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불교공동체 왓선빌리(Watsonville) 사원이 설립 100주년을 맞아 수 백명이 모인 가운데11월 15일 기념식을 봉행했다고 불교뉴스 포털 '부디스트 채널'이 최근 보도했다.

왓선빌리 사원은 지난 19세기말 파자로(Pajaro) 계곡에 도착한 일본 이주민들이 설립한 사찰로, 일본 문화의 전승을 위해 승가와 신도단 중심으로 운영 · 유지돼왔다.

신도단은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일본에서 복원해 금으로 제작된 대형 불단을 들여오는 등 행사준비를 해왔다. 김철우 기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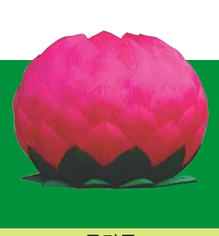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 등

팔각봉축접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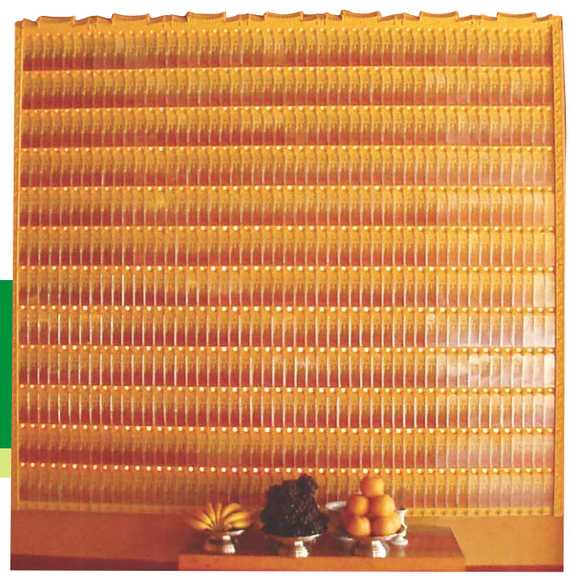
공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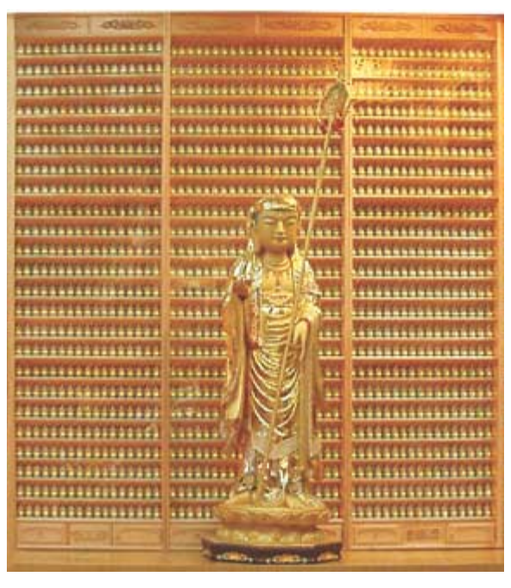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